

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현대중공업지주, 현대글로벌서비스 프리IPO로 8천억원 유치

현대중공업지주가 계열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의 프리 IPO(상장 전 투자 유치)로 총 8천억원을 확보했다고 보도됨. 현대중공업지주는 23일 이사회에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프리 IPO 안건을 승인받고 미국 최대 사모펀드인 KKR에 현대글로벌서비스 지분 38%(152만주)를 6,46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. (연합뉴스)

삼성중공업 '드립십 소송' 브라질 당국과 합의..합의금 1,650억원

삼성중공업이 지난 2006~2007년 원유추진(드립십)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수수 관련 소송에서 브라질 당국과 최종 합의했다고 공시함. 삼성중공업은 합의금으로 8억1,200만 브라질레알(BRL)(약 1,650억원)을 지급할 예정이며 브라질 정부기관들은 일체의 기소 등 행정,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됨. (뉴스핌)

싱가포르, 한조해-대우조선 결합 승인이유 공개... "경쟁자 중요"

싱가포르 경쟁 당국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 이유를 23일 공개하며 시장점유율보다 경쟁자 존재여부를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보도됨. 시장점유율은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결합 심사 시 주된 판단 요소지만 입찰이 중심인 조선 시장에선 주요 경쟁자의 존재 여부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싱가포르 경쟁-소비자위원회의 주장이라고 보도됨. (연합뉴스)

컨테이너선사 세계 1위 자리바꿈

덴마크 선사 Maersk Line이 25년 만에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 자리에서 밀려났다고 보도됨. 운영선대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한 MSC는 지난 6개월 간 증고선을 대량 매입하는 한편 24,000TEU급 메가 컨테이너선을 발주하고 있다고 보도됨. 사선 기준으로는 여전히 Maersk가 MSC의 2배 규모라고 보도됨. (선박뉴스)

Petrobras launches fresh Brazil deep-water drilling tender - here's how many rigs it is chasing

브라질 국영 에너지업체 Petrobras가 심해시추장비를 최대 5척 가량 새로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. 현재 선대의 80% 이상이 2022년 말 까지 용선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선대의 재확충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도됨. 3월 15일 예정된 입찰에는 Valaris, Noble Corp, Transocean 등 시추업체 대부분이 참여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. (Upstream)

TechnipFMC confirms award from Petronas on Malaysian deep-water development

영국의 TechnipFMC가 말레이시아의 Petronas가 주도하는 Limbayong Oil & Gas 개발 프로젝트관련 핵심 해양공사를 수주했다고 보도됨. 계약규모는 2.5억~5.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10개의 유전 및 가스전을 개발하고 해양공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보도됨. (Upstream)